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309호)

마이다스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09년 10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0-26
펀드 규모	25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49%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0월 한달간 펀드 수익률은 -4.95%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수익률은 -4.04%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났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성과가 좋지 않았던,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비중이 다소 높았던 점과, 둘째 주식편입비중을 85% 이상으로 유지 했으나, 시장이 하락 하였다는 점과, 셋째 엔씨소프트, OCI, LG디스플레이 같은 편입종목의 수익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황

10월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가파른 시장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수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1) 그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던 양호한 경제지표 및 선행지표가 3분기 고점 형성 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2) 각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둔화 우려 3) 기업의 양호한 실적 및 긍정적인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관점 등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의 월말 매수둔화와 주식형 펀드환매에 따른 기관들의 순매도가 이어졌고 , 업종별 성과로는 실적과 외국인 매수가 돋보였던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내수업종의 성대성과가 좋았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종목 선택

보유 포트폴리오의 시장대비 성과를 분석해보면, 포트폴리오 중 롯데쇼핑, 제일기획, 현대건설, 우리금융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엔씨소프트, OCI, 대우증권, LG디스플레이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10월 중 포트폴리오 변경 종목으로는, 환매에 따라 비중 확대한 종목은 없었으며, 반면 LG디스플레이, CJ오쇼핑, 신세계, 유한양행 등의 비중을 축소 시켰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월 만기 옵션은 227.5에 매도 하였으며 10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11.51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11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27.5를 매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으나 11월 만기일까지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4.95%	4.48%	15.71%	42.16%	186.24%
참고지표	-4.04%	1.45%	12.23%	32.83%	154.36%
초과수익률	-0.91%	3.03%	3.49%	9.33%	3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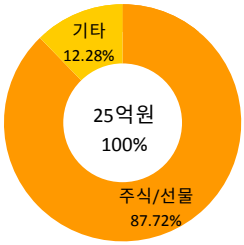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0.26~2009.10.30)

포트폴리오 현황

[2009.10.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08.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41.79%)

삼성전자	11.21
POSCO	4.99
LG화학	3.73
LG디스플레이	3.34
LG전자	3.25
현대차	3.21
하나금융지주	3.21
우리금융	3.12
하이닉스	2.97
KT	2.77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